

제1절 인구 구조와 변화

1. 울진군의 인구변화 추이

사람은 자연 지리적 환경을 기반으로 역사적 시간의 축과 사회적 공간의 축이 빛은 사회 문화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한다.

인구(人口)는 ‘인간집단의 계수(計數)로서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으로 구획된 일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¹⁾으로 정의된다. 곧 인구는 ‘국민’, ‘인종’, ‘민족’의 의미와는 다르며 일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전부를 포괄하는 의미로서 외국인이나 이민족도 포함한다. 인구는 한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적 표상을 나타내주는 가장 기본적 요소이다. 인구는 일차적으로 생물적 존재이면서 성별·연령별 등의 특성에 따라 그 구성이 다르며 동시에 사회적 존재로서 제도·사상·관습 등을 지닌다. 또 생존을 위해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행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존재이다. 인구는 각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그 구성·제도·형태 등이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인구의 증감이나 이동 또는 인구 구조 등에 의해서 그 성격을 알 수 있다. 인구의 증감은 출생과 사망 등의 자연적 증감과 전입과 전출 등 사회적 요소에 의해 나타난다.

역사학자들은 울진지역에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한 시기를 신석기시대로 분석하고 있다.²⁾ 노중국 교수는 이의 근거로 후포리 신석기 유적과 죽변리 신석기 유적을 제시했다.

울진군의 2018년 12월 말 현재 총인구수는 51,538명이다. 이 중 남성이 26,295명이며 여성은 25,243명이다. 또 한국인은 50,036명이며 이 중 남성은 24,984명, 여성은 25,053명이다. 외국인은 1,502명이며, 남성은 1,312명, 여성은 190명이다. 세대수는 25,137이다.

읍면별로 살펴보면 울진읍이 14,691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후포면으로 8,422명이다. 그다음은 죽변면으로 7,341명이며, 북면 6,941명, 평해읍 3,126명, 근남면 2,837명, 기성면 2,775명, 매화면 2,198명, 온정면 1,846명, 금강송면 1,361명 순이다.³⁾

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권18

2. 노중국, 2006, 『지정학적 위치로 본 고대의 울진』, 『울진군의 역사와 문화』, (재)삼한문화재연구원·(재)성림문화재연구원 학술대회

3. 울진군, 2018, 『울진통계연보』

<표 1> 읍면동별 인구 및 세대 현황(2018년 12월 현재)

(단위 : 세대, 명)

	세대수	총계			한국인			외국인		
		총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울진군	25,137	51,538	26,295	25,243	50,036	24,983	25,053	1,502	1,312	190
울진읍	6,083	14,691	7,396	7,295	14,571	7,318	7,253	120	78	42
평해읍	1,753	3,126	1,560	1,566	3,048	1,496	1,552	78	64	14
북면	3,517	6,941	3,660	3,281	6,900	3,644	3,256	41	16	25
근남면	1,533	2,837	1,398	1,439	2,788	1,367	1,421	49	31	18
기성면	1,643	2,775	1,342	1,433	2,635	1,215	1,420	140	127	13
온정면	1,007	1,846	889	957	1,831	887	944	15	2	13
죽변면	3,627	7,341	3,910	3,431	7,008	3,592	3,416	333	318	15
후포면	3,935	8,442	4,421	4,001	7,808	3,842	3,966	614	579	35
금강송면	792	1,361	662	699	1,350	656	694	11	6	5
매화면	1,247	2,198	1,057	1,141	2,097	966	1,131	101	91	10

출처 : 울진군, 2018, 『울진군통계연보』

1960년대 이후 울진군의 인구가 가장 많은 시기는 1966년도이다. 당시 울진군의 인구는 117,602명이며 가구 수는 19,879호이다. 또 당시 가구당 인구는 5.9명이며 인구밀도는 114/km²이다.⁴

이후 울진군의 인구는 1977년까지 10만 명 선을 유지하며 지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1978년 처음으로 96,984명을 기록하면서 인구 10만 명 선이 무너졌다. 또 1978년을 기점으로 9만 명대를 유지하던 울진군의 인구는 1988년 78,036명을 기록하며 7만 명 선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1997년에 69,253명을 기록하며 6만 명 선으로 감소했다.

또 6만 명 선을 유지하던 규모는 2004년 58,869명을 기록하면서 5만 명 선으로 감소한 후 2017년 52,337명, 2018년도에 50,036명을 기록하며 5만 명 대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의 인구감소 경향은 울진군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 1960년대는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근대적 의미의 산업화가 시작된 시기로, 이른바 ‘이농(離農)’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던 시기였다. 도시산업화로 이농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면서 대가족 중심의 농어촌 인구 구조는 급격하게 변화했다. 이 같은 이농과 도시 집중 현상은 1990년대까지 지속

4. 울진군, 1998, 『울진군통계연보』

해서 진행되었다.

당시 전국 인구에 대한 도시인구의 비율인 도시화율은, 인구 5만 명 이상의 시 지역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1960년에 약 28%에 머물렀던 것이 1990년대에는 약 75%대로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⁵ 울진군 또한 도시로의 사회적 인구이동의 영향으로 인구감소 추세가 두드러진 경향을 보였다.

1980년에 상주인구 90,782명을 보이던 울진군은 1981년에 89,865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8만 명대로 감소하면서 이후 1987년까지 인구 8만 명대를 유지하고 1988년 78,036명으로 감소한 이후 80년대 후반까지 7만 명대를 유지했다. 이 무렵 울진군의 인구 경향은 1983년부터 본격화된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 국책사업인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당시 한국전력 직원들의 이주와 원전 건설에 따른 토목, 건축, 기계 등 건설 부문별 기술, 기능 인력이 집중화되면서 울진군의 인구는 타 농어촌 지역 지자체가 급격한 인구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울진군은 상당 기간 정체된 경향을 나타냈다.

1983년 당시는 울진원자력발전소[현 한울원자력발전소] 1, 2호기 건설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1차 산업인 농업과 임업, 수산업에 의존하던 울진군의 경제 양상이 대형 국책산업이자 노동집약적 산업인 원전건설의 특성이 반영되면서 상주인구와 함께 노동자 계층의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증가 양상을 보였다.

이는 원전건설 관련 인구의 증가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당시 도시산업화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던 이농 현상을 억제해 기존의 울진지역 인구의 외부 유출을 감소시키는 결과도 가져왔다.

<표 2> 울진군 인구변화 추이

연별	세대	등록인구								
		합계	남	여	한국인			외국인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1983	19,864	88,752	44,728	44,024						
1984	19,378	88,985	45,093	43,892						
1985	20,611	87,813	44,618	43,195						
1986	22,376	87,469	44,288	43,181						
1987	21,951	83,852	41,906	41,946						
1988	21,167	78,036	38,698	39,338						

5. 울진군, 2001, 『울진군지』상, 79쪽

연별	세대	등록인구								
		합계	남	여	한국인			외국인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1989	20,317	72,626	35,721	36,905						
1990	20,763	69,839	34,454	35,385						
1991	20,176	72,611	35,859	36,752						
1992	20,656	71,072	35,022	36,050						
1993	21,084	70,198	34,661	35,537	70,182	34,648	35,534	16	13	3
1994	22,104	70,742	35,125	35,617	70,718	35,109	35,609	24	16	8
1995	22,901	70,764	35,172	35,592	70,717	35,142	35,575	47	30	17
1996	23,414	70,411	35,042	35,369	70,343	35,008	35,335	68	34	34
1997	23,749	69,263	34,462	34,801	69,145	34,417	34,728	118	45	73
1998	23,681	68,426	34,054	34,372	68,342	34,022	34,320	84	32	52
1999	23,861	67,317	33,467	33,850	67,259	33,454	33,805	58	13	45
2000	24,207	66,428	32,984	33,444	66,298	32,912	33,386	130	72	58
2001	24,428	65,878	32,695	33,183	65,688	32,586	33,102	190	109	81
2002	24,155	63,731	31,628	32,103	63,511	31,486	32,025	220	142	78
2003	23,912	61,235	30,311	30,924	61,031	30,190	30,841	204	121	83
2004	23,532	58,869	29,068	29,801	58,590	28,881	29,709	279	187	92
2005	23,347	56,988	28,081	28,907	56,707	27,903	28,804	281	178	103
2006	23,185	55,404	27,315	28,088	55,076	27,090	27,986	328	226	102
2007	23,099	54,353	26,872	27,481	53,955	26,584	27,371	398	288	110
2008	23,091	53,478	26,425	27,053	53,042	26,110	26,932	436	315	121
2009	23,309	53,087	26,270	26,817	52,529	25,857	26,672	558	413	145
2010	23,666	53,100	26,290	26,810	52,430	25,778	26,652	670	512	158
2011	23,652	52,864	26,138	26,726	52,045	25,504	26,541	819	634	185
2012	23,864	52,681	26,159	26,522	51,844	25,507	26,337	837	652	185
2013	24,256	53,013	26,501	26,512	51,953	25,642	26,311	1,060	859	201
2014	24,590	53,318	26,841	26,477	52,104	25,825	26,279	1,214	1,016	198
2015	24,926	53,103	26,846	26,257	51,885	25,813	26,072	1,218	1,033	185
2016	25,186	52,974	26,877	26,097	51,738	25,847	26,891	1,236	1,030	206
2017	25,148	52,337	26,636	25,701	50,974	25,463	25,511	1,363	1,173	190
2018	25,137	51,538	26,295	25,243	50,036	24,983	25,053	1,502	1,312	190

출처 : 올진군, 1998, 『올진통계연보』

울진군의 2018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본격화된 1983년 이후 울진군의 세대수와 인구는 점차 증가 추세를 보여 1985년에 2만 세대를 넘어선 이후 2014년까지 2만3000세대를 유지하다가 2014년부터 2만5000여 세대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1993년부터 등록 외국인 수가 처음 출현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3년에 처음으로 1,000명대를 넘어섰으며, 2018년에 1,500명대로 증가했다.

이는 1983년부터 본격화된 원전건설이 1993년 무렵 본격적인 가동단계로 접어들면서, 당시 울진 원전 1, 2호기가 프랑스형 원자로를 도입한 데 따른 프랑스 등 외국인 기술자가 상주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2002년 이후 등록 외국인 수가 200명대로 넘어서면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이는 농어촌 지역이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 등의 분야에 외국인 근로 인력이 대체되는 경향에 다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기간 외국인 여성 인력도 꾸준히 증가한 추세를 보여 농어촌 지역의 결혼 양상이 동남아 지역 외국인과의 결혼 등 다문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인구분포

2018년 말 울진군의 인구는 50,036명이며, 이 중 남자가 24,983명, 여자가 25,053명이다.

2018년 말 경상북도 전체 인구는 2,733,769명이며 울진군의 인구는 경북도의 1.8%에 해당한다. 통계자료에 의한 울진군의 인구는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14번째 규모이며 경북 도 내 군(郡) 단위에서는 칠곡군[122,789명], 예천군[53,811명], 의성군[53,579명] 다음으로 4번째 규모이다.

그러나 울진군의 면적이 경상북도의 5.2%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면적률과 비교해 인구율은 1/2 밖에 되지 않는 상반된 특성을 보인다.

울진군 읍·면별 인구분포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읍·면별 인구분포

행정구역(읍·면)	인구수(명)			3년간 증감인구(명)	증감인구 구성비
	2016	2017	2018		
합계	51,738	50,974	50,036	-1,702	100.0%
울진읍	14,576	14,562	14,571	-5	0.3%
평해읍	3,198	3,128	3,048	-150	8.8%

행정구역(읍·면)	인구수(명)			3년간 증감인구(명)	증감인구 구성비
	2016	2017	2018		
북면	7,362	7,165	6,900	-462	27.1%
금강송면	1,437	1,399	1,350	-87	5.1%
근남면	2,829	2,796	2,788	-41	2.4%
매화면	2,236	2,182	2,097	-139	8.2%
기성면	2,754	2,681	2,635	-119	7.0%
온정면	1,891	1,867	1,831	-60	3.5%
죽변면	7,439	7,204	7,008	-431	25.3%
후포면	8,016	7,990	7,808	-208	12.2%

출처 : 울진군, 2018, 『울진군통계연보』

울진군의 10개 읍, 면 중 2018년 말 기준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울진읍으로서 울진군 전체 인구의 29.1%를 차지하는 114,571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다음은 후포면으로 7,808명[15.6%], 죽변면 7,008명[14.0%], 북면 6,900명[13.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평해읍의 인구는 3,048명[6.09%], 근남면 2,829명[5.65%], 기성면 2,754명[5.50%], 매화면 2,236명[4.46%], 온정면 1,891명[3.77%], 금강송면 1,437명[2.87%] 순이다.

이들 평해읍과 근남면, 기성면, 매화면, 온정면, 금강송면의 인구는 울진군 전체 인구의 10% 미만의 인구 비율을 보이고 있다.

울진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어촌 혹은 중소도시가 인구감소의 경향을 보이는 것처럼, 울진군 역시 인구통계자료가 있는 1962년 이래 지속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울진군의 인구가 10만 명을 넘은 시기는 1962년~1977년 사이며, 인구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1966년으로 117,602명이었으며, 2018년 말 50,036명에 비해 67,566명이 많은 규모로 이는 2018년 말 현재 울진군 전체 인구수보다 17,530명이 많은 인구가 거주한 것으로 분석된다.

울진군의 인구는 1977년 이래 10만 명을 초과한 해는 한 해도 없었으며, 1997년부터 인구 6만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다소 고무적인 현상은 절대적인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세대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1년 이래 세대수가 지속해서 증가한다는 사실은 울진군으로서는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3. 주요 인구 구성별 분포현황

울진군의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주요 인구 구성별 분포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임여성[15~49세] 분포현황이다.⁶

<표 4> 가임여성 분포현황

구분	총인구수	가임여성	비율
2013	51,953	9,512	18.3%
2014	52,104	9,483	18.2%
2015	51,885	9,175	17.7%
2016	51,738	9,012	17.4%
2017	50,974	8,696	17.1%
2018	50,036	8,282	16.6%
연평균증가율	-0.75%	-2.73%	-2.00%

출처 : 울진군, 2018, 『울진군통계연보』

핵심 근로 인구[25~49세] 분포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 핵심 근로인구 분포 현황

구분	총인구수	핵심근로인구	비율
2013	51,953	15,696	30.2%
2014	52,104	15,504	29.8%
2015	51,885	15,102	29.1%
2016	51,738	14,924	28.9%
2017	50,974	14,340	28.1%
2018	50,036	13,697	27.4%
연평균증가율	-0.75%	-2.69%	-1.96%

출처 : 울진군, 2018, 『울진군통계연보』

고령자[65세 이상] 인구 현황은 아래와 같다.

6. 울진군, 2019, 『울진군 맞춤형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표 6> 고령자 인구 현황

구분	총인구수	고령자	비율
2013	51,953	12,447	24.0%
2014	52,104	12,593	24.2%
2015	51,885	12,654	24.4%
2016	51,738	12,655	24.5%
2017	50,974	12,854	25.2%
2018	50,036	13,073	26.1%
연평균증가율	-0.75%	0.99%	1.75%

출처 : 울진군, 2018, 『울진군통계연보』

학령인구[5~19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7> 학령인구 분포 현황

구분	총인구수	학령인구	비율
2013	51,953	7,253	14.0%
2014	52,104	7,066	13.6%
2015	51,855	6,766	13.0%
2016	51,738	6,547	12.7%
2017	50,974	6,315	12.4%
2018	50,036	5,948	11.9%
연평균증가율	-0.75%	-3.89%	-3.16%

출처 : 울진군, 2018, 『울진군통계연보』

울진군의 인구수 변화를 보면 1985년 8만7813명이던 것이 1997년에는 6만9263명으로 2만여 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어 2001년에는 6만5878명으로 4,000여 명이 감소하고 2018년 12월 말 기준 5만36명으로 1만5000여 명이 감소해 점차 감소추세를 두드러지게 보였다.

한편 같은 기간에 세대수의 변화도 1985년 2만611가구에서 1996년에는 2만3413가구로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2001년에는 2만4428, 2017년에는 2만5148세대로 미미하게 증가했다.

1987년 울진군의 읍·면별 가구와 인구분포를 보면, 먼저 총 세대수 2만1951세대의 16.6%가 울진읍에 분포하여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후포면이 3278세대로 15%이다.

이어 북면이 3,163세대[14.4%], 죽변면이 3,039세대[13.8%], 기성면이 1,890세대[8.6%], 평해읍이 1,780세대[8.1%], 매화면이 1,580세대[7.2%], 근남면이 1,480세대[6.7%], 온정면이 1,356세대[6.1%], 금강송면이 728세대[3.3%] 분포를 보였다.

2017년 말 기준 울진읍의 세대수는 5,966세대로 울진군 전체 세대수의 23.7%이며, 그 다음은 후포면으로 3,931세대[15.6%]이며 죽변면이 3,654세대[14.5%], 북면이 3,571세대[14.1%], 평해읍이 1,790세대[7.1%], 기성면이 1,629세대[6.4%], 근남면이 1,507세대[5.9%], 매화면이 1,288세대[5.1%], 온정면이 1,012세대[4.0%], 금강송면이 800세대[3.1%] 분포를 보여 군청 소재지인 울진읍과 항구도시인 죽변면과 후포면, 원전건설지인 북면 지역의 인구 집중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성별 인구를 보면 2017년의 경우 외국인 포함 남자는 26,636명[외국인 1,363명]이고 여자는 25,701명[외국인 1,173명]로 남자는 전체의 50.8%이며 여자는 49.2%를 차지하고 있다. 울진지역에서 외국인 수가 증가하던 시기인 2012년의 경우, 남자는 26,159명[외국인 652명]이며, 여자는 26,522명[외국인 185명]으로 2012년에 비해 2017년도 경우 여성과 비교해 남성의 수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원전 건설과 항구도시의 노동 특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가임여성의 경우, 2013년 9,512명으로 전체 여자 인구 26,512명 대비 18.3%에서 2018년 8,282명[16.6%]으로 -2.0%의 감소율을 보였다.

또 25세~49세에 이르는 핵심 근로 인구는 2013년 15,696명으로 전체 인구 51,953명의 30.2%를 보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며 2018년 13,697명[27.4%]으로 -1.96%의 감소율을 보였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2013년 12,447명으로 전체 인구 51,953명의 24.0%였으나, 2018년에는 13,073명[26.1%]으로 1.75%가량 증가 추세를 보였다.

5세에서 19세에 이르는 학령인구는 2013년 7,253명으로 전체 인구 51,953명의 14.0%를 규모가 2018년에는 5,948명[11.9%]으로 줄어들어 -3.16%의 감소율을 보이며 현격히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울진군의 노년 인구 비율이 높은 것은 그동안 젊은 층이 도시로 선택적 인구이동을 하였고 또 출생률이 저하하였기 때문이다.

울진군 외국인은 1994년에 처음 16명이 등록한 이래 2013년 837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했으며 이듬해인 2014년에 1,060명으로 처음 1,000명대를 넘어선 이후 지속적인 증가로 2017년 말 현재 1,363으로 집계됐다.

2017년 외국인의 남녀별 구성을 보면 남자가 1,173명으로 86.0%, 여자가 190명에 13.0% 규모를 보여 남자 비율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 읍면별로는 후포면이 553명으로 전체 1,363명의 40.5%를 차지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은 죽변면이 366명으로 26.8%를 차지했다. 다음은 기성면이 132명[9.6%], 울진읍이 103명[7.5%], 매화면이 80명[5.8%], 평해읍이 63명[4.6%], 북면이 55명[4.03%], 근남면이 33명[2.4%], 금강송면이 21명[1.5%], 온정면이 17명[1.2%] 순이다.

후포면과 죽변면이 외국인 수가 타 읍면과 비교해 월등하게 많은 것은 후포면과 죽변면이 울진군의 대표적 어항인 후포항과 죽변항을 보유한 지역으로 지역 내 어업인구 등의 고령화로 외국인 선원 고용도가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울진군의 학령인구[5세~19세] 분포를 살펴보면, 2013년의 경우, 학령인구는 7,253명으로 전체 인구 51,953명의 14.0% 규모였으나, 2018년에는 5,948명 11.9%으로 나타나 -3.16%의 감소추세를 보였다.

4. 총가구 수의 변화 추이⁷⁾

가구란 한 집에서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집단으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친족 가구가 대부분이다. 가족이 사회의 기본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생각할 때 가구 수나 가구원 수의 변화는 사회변화와 밀접한 상관이 있다.

<표 8> 울진군의 인구와 가구의 변천사

(단위 : 명, 호, 명/㎢)

연도	인구	가구	가구당 인구	인구 밀도	연도	인구	가구	가구당 인구	인구 밀도
1962	104,636	17,808	5.9	101	1991	72,611	20,176	3.6	73
1963	111,243	18,336	6.1	108	1992	71,072	20,656	3.4	72
1964	114,927	18,798	6.1	111	1993	70,198	21,084	3.3	71
1965	116,861	19,019	6.1	113	1994	70,742	22,104	3.2	72
1966	117,602	19,879	5.9	114	1995	70,764	22,901	3.0	72
1967	116,578	19,599	6.0	113	1996	70,411	23,413	3.0	71
1968	114,252	19,360	5.9	111	1997	69,263	23,749	2.9	70
1969	114,252	19,360	5.9	110	1998	68,426	23,681	2.8	69
1970	111,410	20,130	5.5	108	1999	67,317	23,861	2.8	68
1971	110,785	19,673	5.6	105	2000	66,428	24,207	2.7	67
1972	110,136	19,178	5.7	105	2001	65,878	24,428	2.6	67
1973	110,434	19,145	5.8	105	2002	63,731	24,155	2.6	64

7. 총가구 수의 내용은 기존 울진군지의 맥락을 연결하기 위해 울진군, 2001, 『울진군지』 상을 참조해서 기술했음을 밝혀둔다.

연도	인구	가구	가구당 인구	인구 밀도	연도	인구	가구	가구당 인구	인구 밀도
1974	109,503	19,216	5.7	107	2003	61235	23912	2.5	62
1975	105,095	19,652	5.3	106	2004	58869	23532	2.5	60
1976	102,941	19,056	5.4	102	2005	56988	23347	2.4	58
1977	100,083	18,790	5.3	105	2006	55404	23158	2.3	56
1978	96,984	18,736	5.2	102	2007	54353	23099	2.3	55
1979	94,628	18,868	5.0	98	2008	53478	23091	2.3	54
1980	90,782	19,366	4.7	92	2009	53087	23309	2.2	54
1981	89,865	18,938	4.7	91	2010	53100	23666	2.3	54
1982	90,522	19,248	4.7	92	2011	52864	23652	2.2	53
1983	88,752	19,864	4.5	90	2012	52681	23864	2.2	53
1984	88,985	19,378	4.4	90	2013	53013	24256	2.1	54
1985	87,813	20,611	4.1	89	2014	53318	24590	2.1	54
1986	87,469	22,376	3.9	89	2015	53103	24926	2.1	54
1987	83,852	21,951	3.8	85	2016	52974	25186	2.1	54
1988	78,036	21,167	3.7	79	2017	52337	25148	2.0	53
1989	72,626	20,317	3.6	73	2018	51538	25137	2.0	52
1990	69,839	20,763	3.4	71					

출처 : 울진군, 2018, 『울진군통계연보』

2018년 말 현재 울진군의 총가구 수는 25,137가구이다. 울진군에는 2만5000여 가족이 사는 셈이다. 울진군의 인구수가 1962년 이후 1977년까지 10만 명대를 유지한 반면 1978년 9만 명대로 감소한 후 계속 감소한 것과는 달리, 가구 수는 1962년이 17,808가구로 최저치를 보인 이래 그 후 계속 증가해 왔다. 그 사이 일부 연도의 가구 수가 감소하는 예도 있었으나 큰 흐름은 해마다, 가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그 결과 2017년과 2018년 현재 가장 많은 가구 수를 나타내고 있다.

1962년 이후 현재까지 울진군의 인구수는 50%대에 육박하는 49.2%의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가구 수는 41.1%의 증가율을 보였다. 가구 수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가 감소하였다는 데 있다. 울진군의 가구당 인구는 1962년의 경우 5.9명이었으며, 1963년~1965년 사이에 6.1명으로 최대치를 보이다가 그 후 계속 줄어들어 1986년도에 3.9명을 보이며 처음으로 3명대로 감소했으며 1997년에 2명 대로 떨어졌으며 2018년 말 현재 가구당 인구는 2.0명으로 감소해 사실상 핵가족화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2018년 말 현재 가구당 인구는 2.0명에 불과하다. 가구당 인구의 감소는 울진군뿐만 아

나라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으로, 핵가족화와 더불어 이혼 및 독신 가구의 증가로 가족 구성원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평균 가구원 수의 변동은 특히 대가족 제도와 핵가족화 등 사회관습의 변화, 출생률과 사망률의 변동 그리고 인구이동 등에 영향을 받는다. 1960년대 이후의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 수의 감소는 특히 출생률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시와 농촌 간의 평균 가구원 수에 관한 통계를 살펴보면, 농촌의 경우 과거에는 대가족 제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기 때문에 도시지역보다는 가구원 수가 많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젊은 인구층의 도시이동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도시 지역의 평균 가구원 수가 농촌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울진군의 평균 가구원 수를 살펴보면, 1970년은 5.5명, 1980년은 4.7명, 1990년은 3.4명, 2000년대는 2.7명, 2010년대는 1.87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의 평균 가구원 수가 1970년 5.2명 그리고 1980년 4.6명인 것과 비교해 많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0년과 1995년의 울진군의 평균 가구원 수는 각각 3.4명 및 3.0명으로, 같은 연도의 전국 평균인 3.7명과 3.3명보다 낮게 나타나 이때부터 울진군을 포함한 농어촌 지역의 평균 가족 구성원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⁸

제2절 읍·면별 인구분포와 변화

1. 읍면리별 인구변화 추이

<표 9> 울진군 읍면별 인구 및 인구밀도 변화 추이

읍면/연도		1996	1999	2002	2006	2009	2012	2015	2018
울진읍	인구	14,161	14,311	14,122	13,497	13,853	14,294	14,670	14,691
	인구밀도	174	176.22	173.89	166.16	170	175.23	179.88	180.24
평해읍	인구	5,198	4,745	4,315	3,805	3,541	3,270	3,247	3,126
	인구밀도	140	127.69	115.96	102.31	95	87.87	87.21	83.96
북면	인구	9,701	9,048	9,562	7,806	7,343	7,196	7,402	6,941
	인구밀도	68	63.68	67.29	54.94	52	50.65	52.10	48.85

8. 제1장 인구 부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국의 통계자료, 경상북도 전체 통계자료 및 경상북도 내의 시군 통계자료 등은 2001년에 발간한 『울진군 지』상을 인용한 것임.